

#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주목받는 랩어카운트 다시 보기

닌텐도 뛰어넘은 'DeNA' 비결

2020년 뜰 유망 산업은 무엇

## 되살아난 '자원 버블' 공포

금융그룹 CEO 인선 시스템 최적의 해법은  
강남 부자들이 생일 선물로 금을 사는 이유  
장하준 교수 비판 나선 자유주의자들 누구?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인터뷰**  
“한국서 보지 못했던 금융사로 거듭날 것”



값 3,500원

한국경제신문



9 77228 444006  
ISSN 1228-4440

러시아 전력산업

# 송배전망 정비 등 현대화에 1조 달러 투자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외곽의 도모 데도보 국제공항에서 1월 24일 오후(현지 시간) 자살 폭탄 테러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21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러시아 주가지수인 MICEX 지수는 장중 1.91% 떨어졌고 RTS(러시아증권거래소) 지수는 1.54% 하락했다. 러시아 5년 국제 기준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는 1월 25~26일 연속 올라 불안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월 25일 출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다보스포럼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테러 세력들이 다보스포럼 참가와 국제 투자 유치 계획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며 “러시아는 여전히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10%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료 복지 사업과 연금 개혁, 산업 현대화 등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촉구했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8년 75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32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아직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0년 경제성장률 4.0%를 달성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7.9% 마이너스 성장한 것에 비해 상승 반전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3.8%)를 웃도는 결과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힌 8% 경제성장률에는 훨씬 못 미

치지만 추세가 반전된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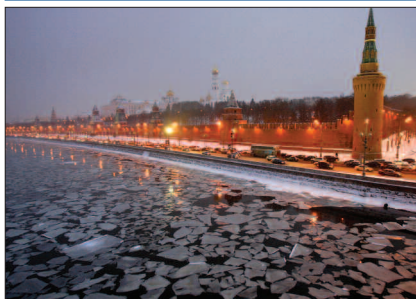
## 전력산업 구조 개혁 완료…효율성이 과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힌 연평균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한 원천이며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산업 현대화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산업 부문이 있겠지만 대통령 직속 경제현대화기술발전위원회의 업무 추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5대 핵심 산업을 선정했는데, 에너지 효율화·자원 절약, 원자력기술, 정보산업기술, 우주·통신기술, 의료제약이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 절약을 최우선 발전 방향으로 선정하고 △에너지 혁신 △소규모 에너지단지 △에너지 효율 사회 부문 △에너지 효율 주거단지 △새로운 빛 △측정·절약·납부라는 6개의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이것의 목표는 산업 및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금액(억 달러) | 297  | 550  | 750  | 368  | 327  |
| 경제성장률(%) | 7.4  | 8.1  | 5.2  | -7.9 | 4.0  |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및 경제개발부



일반적으로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석탄·석유·원자력·가스·전력산업 등을 총칭한다. 러시아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은 전력산업이다. 러시아는 전력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주요 발전사들을 통폐합 및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력산업 개혁을 시작했다. 전력산업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구소련 해체 후 1992년에 설립된 국영 전력회사인 주식회사 RAO UES 러시아를 2008년 러시드로(RusHydro) 등과 6개의 도매 발전회사(OGK), 14개의 지역 발전회사(TGK), 12개의 지역 간 배전망회사 등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수력 분야 일부를 제외한 핵심적인 발전회사들은 독립적인 회사들로 탈바꿈하면서 민영화됐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통합전력시스템운영(UES System Operator UES, 100%), 러시드로(57.96%) 등 주요 회사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일정한 정도의 위기관리를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형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07년 4월 중·장기 전력산업 설비 투자 계획의 근간으로 ‘2020 전력 시설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6월에는 전력 소비량 전망 및 발전 및 송배전 시설 도입 개시 목록을 일부 수정해 ‘2030 전력 시설 건설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 발전소 설비의 39%(82.1GW)가



러시아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배전망 정비 등 전력산업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사진은 모스크바에 있는 화력발전소

노후화돼 2030년까지 신규로 총 317~387GW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망 건설비용을 포함해 1조~1조20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 그리드에도 매년 66억 달러 투자

더욱이 민영화된 러시아 송전공사(Federal Grid Company UES)가 보유한 송전망 시설의 50% 이상이 노후화됐고 IDGC 홀딩스 자회사들의 보유 시설이 최대 70%가량 노후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본 계획에 따른 시설 현대화 및 신규 증설 없이는 미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 기준으로 전문 기관들은 러시아 정부 예산 및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러시아의 전력생산량이 2010년 1036TWh에서 2030년 2300TWh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원별로는 원자력은 2030년까지 150TWh에서 600TWh로 증가하고 수력은 175TWh에서 329TWh로, 화력은 629TWh에서 1351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에서도 환경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그린 에너지가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음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그린 테크놀로지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

시아 정부는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국내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풍

력이나 태양광을 활용해 중앙전력망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석유 및 가스가 많은데다 러시아 국내 에너지 가격이 낮고 신·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러시아 정부가 설정한 전력산업 기술 개발 부문의 목표를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띈다. 러시아 단일 전력 공급 시스템의 차세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s) 구축, 시베리아~우랄~유럽 지역 초고압 직류 및 교류 송전 체계 구축, 합성 소재를 이용한 전선 개발, 분산 전력 생산 시스템 등이다. 일부 러시아의 정책 목표들은 한국의 '그린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로드맵' 정책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기업 쪽에서는 민영화된 러시아 송전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1단계(3년)로 스마트 그리드 신개념 및 신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2단계(2년)로는 시험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000억 루블(약 66억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ABB(Asea Brown Boveri)·지멘스(Siemens)·아레바(Areva) 등

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또 2010년 11월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에는 한국 기업과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러시아 정부는 앞

으로 5년간 평균 8%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현대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타 산업 발전의 밑거름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대를 맞아 러시아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 많고, 관련 기업 육성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산업에서 이미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전력산업의 현대화와 그린 에너지 산업 진출을 위해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큰 성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평균 8%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현대화 및 효율화가 필수라고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 변호사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국제법학부 졸업,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대학원 국제법학부 법학석사·국제법 박사(국제환경법), 러시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변호사(현).